

**당뇨!** 당뇨 근본 원인 기능 개선제  
**프로지 골드**

- 혈당 조절 (공복혈당, HbA1c)
-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 개선

PRO-Z USA (213)434-1170

#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December 23, 2021 Vol. 795

## “미국,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의 시대 준비해야”

데니스 할(Denise Harlle)  
자유수호동맹 고문 기고



미 연방대법원. ©Pixabay

미국 최초로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사건’ 판결이 내년에 연방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포스트-로(대 웨이드) 세계에 지역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을 기고한 데니스 할(Denise Harlle)은 자유수호동맹(ADF) 산하 생명센터의 선임 고문이자 이사이다.

할은 칼럼에서 “50년 전에 로 대 웨이드가 결정된 이후 미국 인들은 죽음의 문화에 속박되

어 왔다”며 “로(대 웨이드)가 사라지면 선택은 이제 우리의 몫이 되며 오랫동안 생명을 지지해 온 사람들은 이때에 일어나

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 대법원이 로를 기각하는 것은 자궁 속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첫 단계일 뿐”이라며

“그 후에 일어나는 일에는 용기, 헌신, 인내가 필요하다. 모든 생명이 포용되고 환영받는 문화를 재창조하려면 국가의 집단적 양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이 생명을 완전히 보호하고자 하는 주들은 낙태를 금지하는 정책을 제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며 “유권자들은 여성들이 자신 있게 모성애에 진입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포괄적인 정책들을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할은 “포스트 로 주들은 (태아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생명을 완전히 보호하기 위해 행동한다. 낙태가 필요한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다른 주들에게 빛나는 모범이 되기 위해 많은 친생명 지

지자들의 합심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낙태를 찬성하는 주장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자손의 생명을 빼앗지 않는 한, 여성들은 사회에 평등한 시민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라며 “낙태 금지 지역이 점점 더 많은 어머니를 갖게 되면 그 거짓말은 완전히 탄로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포스트-로 미국은 생명을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는 국가 문화의 기반을 닦을 잠재력이 있다”면서 “로에 갇힌 미국은 결코 그럴 수 없었다. 얼마나 놀라운 차이가 있는지 세상에 보여 줄 준비를 하자”고 당부했다.

김유진 기자

## 아이티서 납치된 선교사 17명, 본국 무사 송환

아이티에서 납치됐던 미국과 캐나다 선교사 17명이 본국으로 송환돼 무사히 지내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미국 선교단체 ‘크리스천에이드 미니스트리스’ 구호 사역 총책임자인 데이비드 토로이어는 17일 성명을 통해 선교사들이 포로 기간 동안 날마다 기도와 찬양을 하며, 납치범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성명에서 “미국 국적의 비행기가 어제 오후 석방된 인질들과 함께 아이티를 떠났다”면서 “10개월 된 아기, 3세와 6세 남아를 포함한 모두가 상당히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천에이드 소속 선교사들은 ‘400마우조’란 이름의 갠단

에게 지난 10월 16일 납치됐다. 여기에는 미국인 16명과 캐나다인 1명, 아이들 5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갠단은 지난달 22일에 2명의 선교사를 석방한 뒤, 이달 5일에 3명에 풀어줬지만, 남은 12명의 선교사들은 16일 스스로 탈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갠단은 선교사 1명당 100만 달러의 몸값을 요구했으나, 단체는 이 금액을 지불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트로이어는 인질 사태 동안 기도해 준 지지자들에게 감사사를 전하며, 납치 단체를 용서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타인에 대한 폭력과 억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고 믿는다. 당신들은 우리 인질과 그 가족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폭력을 미워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사랑의 능력이 더 강하다는 것을 말씀과 모범으로 가르치셨다”고 전했다.

또 “우리의 소원은 당신들과 이 말씀을 듣거나 읽는 모든 이들이 우리의 구주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자 평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지식에 이르게 할 바란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려 모두를 위해 죽으셨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건 당시 선교사들이 고아원에 구호품을 전달하러 가는 도중에 납치되었다며 선교사들이 “시편 34편 7절의 ‘여호와와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 ©Unsplash/Robin Canfield

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를 합창했고, 포로 기간 내내 그들

이 가장 즐겨 부른 찬송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밝혔다.

트로이어는 선교사들이 포로 생활 중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갠단을 위해 기도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선교사들은 매일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를 격려했다. 아쉽게도 성경은 없었지만 그들을 성구를 암송했다”면서 “납치범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 말해주었다”고 말했다.

크리스천에이드는 아이티 선교사 납치 사건을 통해 안전 조치를 보다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미국 정착의 지름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50만불 간접 투자이민 상담환영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학생비자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중고비자 및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 자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213.251.5554**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A, CA 90010 / Fax 213.251.8451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다양한 빛이 되길 희망합니다

**부동산법/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온 마동환 변호사 그룹에서 여러분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뱅크러시**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2022 HAPPY NEW YEAR**

**은혜이슬 특별새벽 부흥회**

**꿈을 꾸고 이룩하여 땅끝까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14-

**2022. 1. 3(월) ~ 8(토)**

월~금 새벽 5:30am / 토요일 새벽 6:00am / 은혜한인교회 본당 **www.gracemi.com**

 1/3(월) 5:30am 강사: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담임)	 1/4(화) 5:30am 강사: 백정우 목사 (남가주 동신교회 담임)	 1/5(수) 5:30am 강사: 이종용 목사 (코너스톤교회 담임)	 1/6(목) 5:30am 강사: 윤대혁 목사 (사랑의 빛 선교교회 담임)	 1/7(금) 5:30am 강사: 권준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담임)	 1/8(토) 6:00am 강사: 신승훈 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담임)
---	---	---	--	--	---

주일 예배: 1부: 7:30am, 2부: 9:20am 3부: 11:30am, 4부: 2:00pm EM 예배: 1부: 9:20am, 2부: 11:30am

은혜한인교회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TEL: 714.446.1000 www.gracemi.com



# GMU “선교와 사역을 위한 웹사이트 운영” 가을학기 공개 특강 개설

그레이스미션대학(Grace Mission University, 이하 GMU)은 1월 10일부터 20일까지(월, 화, 수, 목요일 오후 5시) 플러튼 현장 강의실에서 “선교와 사역을 위한 웹사이트 운영”라는 제목으로 2022년 가을학기 특별 공개 특강을 개설한다.

공개 특강은 실제 실습 위주의 강의를 통해서 특별한 기술이 없이도 교회의 홈페이지 개설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됐다. 또한 학점으로 신청하는 경우 ACSI 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학점이 필요 없는 경우 공개 청강비는 150불이다. 모든 강의 참가자들에게는 교재가 무료 제공



그레이스미션대학교

된다. 컴퓨터 교사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과정에서 교육학 2

과목, 컴퓨터 과목 8과목, 성경과목 2과목 및 Christian Philosophy of Education(CPoE)을 이수

하고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 주요 강의 내용은 교회와 홈페이지, 워드프레스 이해, 테마설

정, 고급 응용, 워젯, 게시물관리, 유튜브 영상 등록, 홈페이지 구축 실제 등으로 모든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실습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무료로 제공해 줄 예정이다.

강의를 담당하는 제임스 구교수는 “사역자들이 실제 교회 및 선교현장에서 직접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강의를 준비하려고 한다”며 “특히 현장 강의 실습을 위해서 개인별 웹사이트와 함께 실습조교가 있어서 누구나 쉽게 강의를 따로 오도록 준비하였다”고 설명했다. 전화 714-525-0088 (Ext101)

## 한인가정상담소

### ‘위탁가정 아이들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 개최



LA 동물원 트리탑스 테라스에서 개최된 위탁가정 연말 파티

한인가정상담소(KFAM 소장 캐서린 염)가 ‘위탁가정 아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개최했다. 지난 7일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 LA 동물원 내 트리탑스 테라스(Treetops Terrace)에서 열린 행사에는 위탁가정에 머물고 있는 위탁 아이들은 물론 이들을 돌보고 있는 위탁가족 100여명이 참석했다.

위탁 아이들과 부모들은 맛있는 식사를 함께 하고 연말 선물도 받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캐리커처 체험 부스에서 직접 모델이 되기도 하며 행사 내내 행복한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행사 후에는 가족별로 동물원을 관람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이날 한인가정상담소 위탁가정 연말파티를 성사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함께 모았다.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위탁아동 연말 파티 모금행사를 통해 총 1만8천936달

리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개인 기부자, 지역사회 단체, 힐다 솔리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그리고 존 리 시의원 사무실에서 성금을 후원했다.

또한 세인트 제임스학교(St. James Episcopal School) 6학년 학급 전체에서도 발벗고 나섰다. 세인트 제임스학교의 전체 6학년 학생들은 크루거(Krueger) 선생님과 함께 11월 한 달 동안 위탁 아동들을 위한 구디백 드라이브를 시작했다. 크루거 선생은 “한인가정상담소가 지역사회에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번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이다”며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위탁아이들에게 필요한 학용품, 색연필, 책, 인형, 장난감, 양말, 담요 등과 같은 물품을 모았다”라고 밝혔다.

세인트 제임스학교의 6학년 학생들은 2주 동안 매일 아침 등교시 도네이션 물품을 모았으며 총 700여개 물품들로 100개의 구디백을 만드는데 사용

했다. 이 구디백은 연말 위탁가정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뿐만 아니라 행사준비를 위해 선물 포장 봉사를 해준 오픈뱅크의 자원봉사자들 등, 많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이날의 기적을 위해 힘을 보탤었다.

한인가정상담소 캐서린 염소장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의 사랑뿐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도 관심과 애정이 모두 필요하다”며 “올 한 해 동안 위탁가정 아이들을 위해 넘치는 사랑을 보내주시는 많은 후원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2014년부터 LA카운티 내 위탁가정 아이들을 위한 ‘동지찾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미국 내 유일한 아시안 전문 위탁가정에이전시(Foster Family Agency·FFA)로 활동하고 있다.

## 남가주한인목사회

### “성탄 예배 참석자 백신 접종 권장”

크리스마스 시즌이 도래하면서 다가오는 성탄 예배를 최대한 가장 안전한 환경으로 만들 수 있도록 신앙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격이 된다면 코로나-19와 독감 백신을 접종 받기를 촉구합니다. 백신을 접종 받는 것은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구와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최근 증가하는 발병률과 입원에 대응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전역에 걸쳐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항상 모든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주 전역에 의무 시행되는 이 조치는 12월15일부터 2022년 1월15일까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며 델타와 전염성이 매우 높은 오미크론 바이러스 모두의 확산을 모두 늦추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 전역의 일부 교회는 여전히 온라인, 야외, 또는 소규모 혼합 형태로 예배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자가 더 많아지고 대면 예배를 드릴 준비가 갖춰지면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시즌은 대규모로 실내 예배를 드리는 곳이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백신을 접종 받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을 동시에 접종 받는 것은 안전합니다. 모든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무료입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백신은 이제 5세 이

상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게 되어서 어린 자녀를 둔 가족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안겨줍니다. 지난 해와 달리 백신이 광범위하게 보급된 것은 모두 함께 축하하고 예배를 드리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크리스마스의 약속을 기념하면서 대면 예배로 복귀하는 저희의 성도들을 맞이하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아프거나 이번에 실내 대면 예배에 참석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성도들을 위해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여전히 제공할 것입니다. 팬데믹을 겪어 나가는 생활은 우리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얼마나 유연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여러분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지금 백신을 접종 받고 여러분 자신과 가족, 회중과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십시오. 가까운 인근에서 독감 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소를 찾고 예약하려면 MyTurn.ca.gov를 방문하거나 한국어와 영어로 이용할 수 있는 833-422-4255로 전화하십시오.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전건호 목사

www.newstarrealty.com

# 플러튼, 세리토스, 부에나팍, 사이프러스, 라팔마, 엘바인 OC/LA 전지역

## New Star Carol 뉴스타 캐롤 리

**최고의 투자는 아파트/유닛입니다!!** 지역 최고 가격 줄고 렌트질 나오는 유닛을 소개합니다

**사이프러스 모빌홈 \$12만**

방3화2 건평 약 1100SF  
최고학군 최고 위치  
스페이스 렌트 약 \$1,900

**부에나팍 \$95만 HOT!**

방3, 화2 건평 약 1500 SF  
단층 편리한 교통  
쓰쓰물 도보거리  
투자자 환영,  
렌트 \$3,000 받을 수 있는 곳

**몽고리안 비베규 \$32만**

랜초를 내 매우 비싼 지역  
꼭 관심있는 분만  
전환주세요^^

**통비치 보보샹 \$15만**

매우 좋은 지역에 위치  
절호의 찬스!

**부에나팍 깨끗한 단층 \$67만**

방2화2 건평 약 1,226SF  
대지 8,751SF, 별도 뒷채 방1 화1  
넓은 실내 구조, 뉴발런  
편리한 교통, 스쿨 무료

**라미라다 79만**

방4화2 단층  
건평 약 1400 SF  
부에나팍 한타 5분  
최고지역에  
명함로운 지역

**부에나팍 \$120만**

방4화3, 건평 약 2400 sf.  
포텐셜 방2개 화1 추가 퍼미,  
쓰쓰물 도보, 세지봉 세퍼먼트  
완전 리모델링된 집

**코로나 3유닛 \$98만**

IN ESCROW  
하이 포텐셜! 최고 97% 화1!

**부에나팍 4유닛 \$90만**

IN ESCROW  
전주입에 열거

**포모나 2유닛 70만**

IN ESCROW  
프린트 퍼미

**포타나 3유닛 72만**

IN ESCROW  
\$3500/월 인컴

**케롤리의 커머셜을 위한 스페셜 이벤트!!!**  
많은 문의 비랍니다

**샌 베나디노 상가 빌딩 2채 \$250만**

IN ESCROW  
HOT

약 13,000SF 사거리 코너에 위치  
신호등이 있어, 유동인구 많음  
Lease 문의 전화주세요

**라팔마 메디컬센터 내 스페이스 렌트**

IN ESCROW  
HOT

548 SF - 4,851SF, 다양한 사이즈 보유  
병원관련된 업종 환영,  
즉시 입주 가능

**추천 스테셜 !!**

**산티에나 11유닛 380만**

4개의 방 2화1.5  
타운홈스타일, 리모델링된  
월 인컴 \$14,000  
프리임트 케이션

**애나하임 25유닛 \$600만**

17개 방 1 화1  
8개 방 2 화1  
월 인컴 \$23,000

**애나하임 8유닛 \$380만**

월 인컴 \$16,500

**★ 주택 / 상가 매매상담 스페셜리스트, 모든 지역 / 리스팅 전문,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에이전트 캐롤 리 ★**

또! 또!

**2020년 다수 수상**

**캐롤 리**

DRE 01966905 뉴스타부동산 명예부사장  
Carolee Lee Realtor

**Cell 714.345.4989**

- 현 오렌지북부한인회 회장
- 뉴스타장학재단 이사겸 심사위원
- 뉴스타부동산 뉴에이전트 특강강사
- 사이프러스 25년 거주
- UCI 졸업 ● 확실한 1.5세
- Million Dollar Club
- 라디오서울 1650 AM 부동산정보
- 한국일보 중앙일보 부동산칼럼 0\_562.824.4989







신교부흥을 회복하라 #235

### “과달루페 성모 축일과 성탄절을 맞이하는 멕시코 개신교회들(2)”

지난 칼럼에서 말한 대로 필자는 12일(주일) 오후에 과달루페 성모 기뻐 성당까지 1마일 이상 걸어가 보았다.

성당이 멀찍이 보이는데 인파들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 한 시간 이상을 인파 속에서 기다려 통로를 따라 성당으로 들어갔다. 큰 과달루페 성모상과 그림이 걸려있고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 다른 편으로 성당을 가로질러 나가는 것이다. 성모상 앞에는 수북이 성도들이 바친 꽃들이 쌓여있고 한쪽에선 성전 관리자들이 쌓인 꽃들을 밖으로 치웠다. 그렇게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뒤에서 계속 밀려드는 인파로 인해 멈출 수 없이 밀려서 성전 밖으로 나가게 된다. 그러면서 그것이 다였다.

밖으로 나온 이들은 성당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그룹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그 사이로 기념품들을 팔고 있는 장사꾼들이 즐비하였다. 시골에서 며칠씩 걸려 올라온 이들은 단 5분도 안 되는 이 참례를 위하여 매년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다. 어쩌면 그들의 신앙적 예배는 이미 집을 떠나면서부터 순례의 길 자체였는지 모른다.

필자는 다소 허망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올라왔던 길을 역으로 내려갔다. 올라갈 때는 보이지 않았던, 같은 티셔츠 유니폼을 입은 그룹들이 길가 이쪽저쪽에 모여 있었고 그들은 오가는 순례객들에게 음료수와 샌드위치 또는 타코나 빵 등을 나눠주고 있었다. 그것을 받기 위해 군데군데 그룹들이 있는 곳마다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그들은 개신교회에서 나온 봉사자들이었다. 티셔츠에는 십자가 문양과 “solo jesus cristo!”라는 글이 쓰여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개신교회들은 과달루페 성모에게 경배하는 변질된 신앙을 바로 잡기 위해 과달루페 성일에 봉사하면서 전도하는 방법을 세워 매년 참여하는 교회들이 늘고 있다 한다. 교회들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음식들을 장만하여 순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례객들에게 봉사를 하면서 전도 쪽지를 조용히 나누는 것이었다. 전도지의 내용은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구원만이 복음이다. 이제 곧 12월 25일 예수님이 탄생하는 성탄절이 오게 된다. 그때가 온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기뻐하는 진정한 축제일이다”라는 내용의 전도지를 나누어 준다. 수백만 명의 잘못된 믿음을 가진 큰 바위 같은 저들 사이에서 아무 힘없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전하려고 저렇게라도 애쓰는 일부 개신교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필자는 위로가 되었고 기도가 나왔다.

멕시코를 비롯한 남미 안에는 다양한 종족들이 뒤섞여서 수천 년을 살았다. 500년 전 스페인이 남미에 진출하면서 원주민을 강하게 탄압했고, 탄압과 함께 기독교 사제들이 몰려들었다. 물론 그들은 당시 중세 가톨릭이었고 남미 원주민들은 무력에 의해 전과되어진 가톨릭 신앙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특유의 원주민 토착 신앙과 혼합시켜 과달루페 성모 신앙 같은 변질된 신앙을 정착시킨 것이리라. 남부지역 치아파스나 오와까 등의 지역에는 대부분 이 변질된 가톨릭 신앙이 자리 잡았고 어느 지역은 개신교 전도자의 출입을 엄금한다는 현판이 붙여져 있는 곳도 많다. 필자는 개신교회들이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참 크리스천으로 저들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선교사의 고심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도 선교지의 구성구석을 밟고 있다.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성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 신약성경의 배경 “신약의 배경이 되는 요세푸스의 기록”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수님과 초대교회 인물들 그리고 초기 기독교 역사에 관한 자료를 남겼습니다. 요세푸스는 유대인 역사 자료를 수집하고 유대인에 대한 실상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 후에 예루살렘에 태어나 유대 땅에 살았습니다. 요세푸스는 필연적으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큰 이슈였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나 기독교인들의 행적을 요세푸스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요세푸스는 잠시 갈릴리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사시고 활동하셨던 갈릴리 상황을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자신의 ‘생애’라는 책에서 자신이 갈릴리에 살았던 시절을 소개하면서 갈릴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요세푸스는 갈릴리 지역에 204개의 도시와 마을이 존재했다는 것을 밝히는데 이는 다른 역사가들도 사실성에 동의하는 신뢰 받을 만한 자료입니다.

예수님 생애와 예수님 시대에 관한 성경 밖의 기록은 요세푸스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는 요세푸스의 기록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요세푸스의 갈릴리 지역의 기록과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을 너무 소중하게 여긴 나머지 기독교 교회는 요세푸스의 기록을 친 기독교 문서로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세푸스의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가 남긴 자료가 기독교적인 관점도 아니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는 요세푸스의 기록을 기독교 문서로 보았을까요? 이는 요세푸스의 기록들을 단편적으로 인용하던 기독교 사회가 성급하게 요세푸스를 기독교 역사가로 단정 짓고 논리를 전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요세푸스가 기독교적인 역사 자료라고 보게 된 중요한 이유가 성경의 주요 인물들이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세푸스는 예수님과 세례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이는 기독교 기원의 역사성을 보장하는 좋은 자료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행적과 세례 요한과 야고보의 역사성을 증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요세푸스의 기록들이 기독교적인 자료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우선 요세푸스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각각 언급하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요세푸스가 기독교 신자라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에 대해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요세푸스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각각의 민중 지도자로 이해하였습니다.

나아가 요세푸스는 세례 요한을 기술하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예수님에 관한 기록보다 더 상세하고 더 긍정적으로 기록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세례 요한의 기록에 비하여 다소 냉랭하고 무덤덤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지만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거나 그에게 신앙적 믿음을 가졌다는 주장은 하지 않게 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대한 2차 자료나 단편적 자료를 검토한 사람들이 요세푸스 역사 자료를 기독교 교회사 자료로

주장하였습니다.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에서 예수님을 두 번 언급합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죽음을 다루면서 예수님을 언급합니다. 요세푸스는 야고보의 억울한 죽음을 언급하면서 야고보를 “그리스도라고 불렀던 예수의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은 초대교회가 야고보를 불렀던 호칭과는 거리가 멉니다. 또 초대 교회는 예수를 “주”라고 불렀던 반면에 요세푸스는 “그리스도라고 불렀던 예수”라고 부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요세푸스의 기록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베스도가 죽고 알비누스가 부임하는 노상에서 있었으므로, 아나누스는 이를 적절한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의회를 소집하고 그리스도라 불리던 예수의 형제 야고보와 몇몇 다른 사람들을 고발했다. 아나누스는 그들이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들을 돌로 쳐 죽이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이 기사를 전하면서 야고보의 신앙이나 야고보의 선행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또 야고보의 순교를 기리거나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누스 2세는 야고보와 그 밖의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처형하였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 아나누스는 결국 대제사장직을 박탈당합니다.

요세푸스는 예수님의 행적, 초대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상황을 기록하지만 기독교적인 관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세푸스는 예수님의 존재와 행적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은 예수님의 실존과 역사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종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Overseas Voting for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세계 속의 한국인

# 민주주의 꽃 피우다

Koreans around the World,  
Democracy Blossoms!



### 투표하려면,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To vote for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overseas absentees and voters are required to complete the registration in advance.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Overseas Absentee Report Period	2021.10.10.~2022.01.08. October 10, 2021 - January 08, 2022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Registration for Overseas Voters	~2022.01.08.까지 by January 08, 2022

**신고·등록신청 방법**  
How to Register as an Overseas Absentee or an Overseas Voter

- 인터넷 이용(ova.nec.go.kr)  
On the Internet(ova.nec.go.kr)
- 공관방문 / 순회접수  
Visiting the diplomatic mission or a mobile office
- 우편 이용 / 전자우편(e-mail) 이용  
By post or e-mail

**신고·등록신청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고 빠르세요!**  
Report or register quickly and easily on the Internet!



◀ 신고·등록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Go to the website for the registration  
ova.nec.go.kr

**투표기간**  
Voting Period  
February 23, 2022 - February 28, 2022

2022.02.23.~02.28.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The voting days may vary by diplomatic mission within the set overseas voting period.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 참고  
※ Refer 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verseas Voting (ok.nec.go.kr) o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go.kr) websites for more information



# [센트럴 신학단상] 미래가 오는 방식

흔히 우리는 미래가 “온다”고 말한다. 마치 미래라는 어떤 실재가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는 일종의 착시현상이다. 이미 1,500년 전 어거스틴은 과거는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마음에 저장된 것이요, 미래는 기대와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현재는 그것을 지목하는 순간 과거가 되어버리는 짧은 순간임을 통찰했다.

미래는 다가오는 어떤 실재가 아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구성된 어떤 전망이다. 코로나 상황이 점차로 안정되고 있다. 뉴노멀을 준비해야 한다고들 한다. 그런데 우리가 전망하는 미래는 (그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

성경의 여러 굵직한 책들 가운데 마치 부록처럼 끼어 있는 룯기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기근을 피해 모압 땅으로 건너 갔다가 남편과 아들 둘을 여이고, 모압 며느리 룯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이야기이다. 나이도 많고 의지할 남편도 없이 돌아온 나오미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 이름의 뜻은 기쁨인데, 나오미는 이제 자신을 “마라”로 불러달라 한다. 마라는 “쓰다”는 뜻이다. 자신의 인생이 슬픔과 괴로움 뿐이라는 탄식이다.

그런데 룯기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독자들에게는 나오미 집안의 미래가 보인다. 재난과 어려움으로 감추어져 있지만, 미래는 이미 나오미의 삶에 시작된 현실이다.

룯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할 때, 가난하고 소망 없는 나오미를 부양하기 위해 낯선 곳에서 일하러 나갈 때, 그리고 우연히도 그의 장래의 남편이 될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을 때, 독자들은 하나님이 이 가정에 주실 미래가 이미 와있음을 본다.



룯과 오르바에게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하는 나오미. (1795) ©William-Blake/wikipedia

독자의 눈에 보이는 이 미래를 룯기의 등장인물들은 보지 못한다. 룯과 보아스는 다만 그들이 당면한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현재를 살고 결정하며 마음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 메시아의 족보를 이루고 계심을 보지 못한다. 룯은 그가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와서 만난 하나님께 신실하고자, 소망 없는 시어머니를 부양하기로 결심한다. 자신이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도 마땅하다고 말한다.

룯의 결정은 분명 그의 믿음에서 온 것이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쁨무를 자로 의무를 감당하겠다고 나선다. 그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경제적인 손해를 감당할 수 없다면 물려선 상황에서 그의 결정은 아름답다. 보아스 역시 하나님께 신실하고자 손해를 떠 안으면서까지 친족이 살아남도록 도우려 한다. 룯과 보아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한결같은

내딛고 있다.

그런데 바로 그 믿음의 결정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미래는 그들의 믿음의 결실을 통해 나오미 가정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룯과 보아스 사이에서 난 아이는 다윗왕의 조상이 되고, 또 오랜 세월 후에 그가문에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나신다. 하마터면 끊어질 뻔한 나오미의 가문이 이방인인 룯과 이방인의 아들인 보아스 (그는 여리고의 생존자 라합의 아들이다)를 통해 이어지고, 그들의 후손을 통해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오신다. 당대의 누구도 이 위대한 미래를 보지 못하였고, 전망조차 하지 못하였으나, 구원과 미래는 룯과 보아스의 믿음을 통해 시작된다.

지난 두 해 동안 많은 교회들이 마치 재난을 당한 나오미처럼 어려움을 겪고 희망을 잃어버렸다.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는 지금, 미래가 어떻게 올지 묻는 우리의 마음에 기대와 불안이 교차한다. 이제는 좀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가 있는가 하면, 뉴노멀이 어찌면 더 큰 도전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와 모임을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전통적인 목회의 방식에 상당한 변화와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의 “이탈”은 이미 예견된 일이기도 하였거니와 이제는 그것을 이미 뉴노멀로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물론 여러가지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잠시 한 발자국 떨어져서 룯기의 렌즈를 통해 오늘의 도전을 보고, 미래는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성찰하자. 미래와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렘29:11), 연약한 우리의 시야에 그것은 언뜻 포착되지 않는다. 어려움 중에는 더욱 그러하다. 룯기는 우리에게 그 미래와 희망을 “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미래와 희망을 실현시키시는 통로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심을 가르친다.

우리의 매일의 일상은 끈고하고 낙심되는 일의 연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선하

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이루신다. 룯도 보아스도 무슨 대단한 위인들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신앙인들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런 이름 없는 신자들의 일상을 통해, 그들의 믿음의 결정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에 그 모습을 점차 드러낸다.

룯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나오미는 룯과 보아스 사이에서 난 아이를 품에 안고 기뻐한다. 아이를 얻은 기쁨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러나 그 아이가 장차 다윗왕의 조상이요 메시아의 조상이 될 그 엄청난 미래의 현현임을 나오미도 룯도 보아스도 알지 못했다.

뉴노멀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가 하는 것은 사실 부차적인 문제이다.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보다 더욱 본질적인 일은, 오늘 우리가 당면한 상황 속에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정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바로 이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이 세계 안에 실현하시기 때문이다. 그것이 미래가 오는 방식이다.

조장호 교수는 **센트럴신학대학원 신학분과** 조교수(겸임)이고, **웨이코한인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조 장 호 겸임교수  
센트럴신학대학원 신학분과

##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지가 될까?  
안녕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돌려받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 2021 마주기독 대학박람회

<p><b>IRUS</b>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amp; Seminar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BHE, ATS 정회원</li> <li>•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중준 목사)</li> <li>•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li> <li>• 1-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li> <li>•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li> </ul> <p>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p>	<p><b>미성대학교</b>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BHE, ATS 정회원, ATS 준회원</li> <li>• 기독교학위(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li> <li>•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li> <li>•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li> <li>•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li> <li>•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116261227-3454</li> </ul> <p><b>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b>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근 박사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p>	<p>for the Church <b>MIDWESTERN</b> BAPTIST THEOLOGICAL SEMINARY</p> <p>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MLC &amp; ATS 인가) - 100% 한국어 - 1-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p> <p>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p>	<p><b>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b></p> <p>해외인정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인수가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p> <p>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p>
<p><b>월드미션대학교</b> World Mission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BHE, ATS 정회원</li> <li>•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li> <li>•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li> <li>•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li> <li>•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li> </ul> <p>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p>	<p><b>복음대학교</b> Evangelical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RACS 정회원 인증</li> <li>•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li> <li>•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li> <li>• 목회학 학사 (Master of Divinity)</li> <li>•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li> <li>•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li> </ul> <p>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p>	<p><b>GATEWAY SEMINARY</b> Biblical • Missional • Global</p> <p>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b>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amp; 신학석사 (M.T.S)</b>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p>	<p><b>그레이스 미션 대학교</b>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p> <p>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p> <p>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p>
<p><b>Azusa Pacific Seminary</b>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p> <p>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b>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b> 입학문의 ☎ T: (626)857-2200</p>	<p><b>코헨대학교&amp;신학대학원</b></p> <p>With the world! To the world!</p> <p>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p>	<p><b>FULLER</b> THEOLOGICAL SEMINARY</p> <p>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p> <p>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p>	<p>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p> <h2 style="color: purple;">광고 및 후원 문의</h2> <p><b>Tel: (213)739-0403</b> E-mail: chdailya@gmail.com</p>



# 이찬수 목사 “선거 기간, 정치가들 인사시키지 말자”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가 이재명 후보 제적 관련 논란을 19일 설교에서 다시 언급했다.

‘기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아모스 7:7-9)’라는 제목으로 설교 도중 이목사는 “오늘날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너무 많은 일들을 보면서 두렵다”며 “기준 없는 신앙생활과 자기 나름대로의 열심, 교회를 이념의 장으로,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 전국 모든 목회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기준에 역행하는 ‘잘못된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며 “제가 모 후보 출석과 제적 여부를 묻는 많은 기자들과 사람들의 질문 속에서,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를 않는다고 지난 주에 말씀드리지 않았나”고 운을 뗐다.

이에 대해 “제적”이라는 이름이 너무 강하다는 생각도 있지만, 교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정기적으로 제적을 하는 것은 파

문을 시키는 게 아니다”며 “해외에 가시거나 다른 교회로 옮기시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장기간 연락이 두절돼 우리 교회 교인으로 정기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찬수 목사는 “제적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다. 과정에서 착오가 있으면 금방 교정해 드린다. 해외에 갔다가 다시 오시면 복귀시킨다”며 “복귀시킬 것을 왜 제적시키냐고 하시는데, 옥한흠 목사님 말씀처럼 허수를 얹어주고 싶어서다. 출석이 2만 명인데, 등록 성도가 15만 명이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목사는 “지난 3년간 보수라는 분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 지난 2주간 진보라는 분들한테... 지지자들이 교회로 찾아오고 그랬다”며 “욕 먹어도 계속 이럴 것이다. 유력하면 10년간 안 와도 등록해 놓고 대선 후보가 있다고 떠돌고, 평범한 성도들은 칼같이 자른다면 하나님의 다림줄



이찬수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유튜브

이 없는 교회”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은 어떠한가. 장·차관, 국회의원 67%가 교인이면 뭐하는가? 오전에는 교회 왔다가 오후에 절에 가고, 하나님도 바알도 섬기는 분들이 가득한 것이 정치가들 아닌가”라며 “한국교회에 과격하게 제안하고 싶다. 선거 기간에 정치가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절대로 교인들에게 인사시키지 말자. 말이나 되는 일인가”라고 밝혔다.

이찬수 목사는 “제제도 개인적으로 여도 야도 다 찾아온다. 찌지 않을 분들까지 정성껏 기도해 드린다. 그게 목사 아닌가”라며 “하지만 예배는 그들이 아닌 하나님이 일어서시는 시간이다. 설교하는 저조차 가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찍었지만, 여러 번 실패하지 않았다. 좌파 교회니 우파 교회니 하는 것이 부끄럽다”며 “1

천만 8백만 이런 허상에서 벗어나, 그저 주님 앞에 산 위에서 동네에 빛을 비추는 등불 같은 존재, 실상이 되자. 모든 크리스천들이 허수와 허상, 허세라는 3허(虛) 대신 하나님의 다림줄을 인식하며, 목사나 장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든 다림줄을 다 꺾고 하나님의 다림줄로 무장하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다”고 권면했다.

앞서 이목사는 “오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너무 많은 일들을 보면서 두렵다. 기준 없는 신앙생활, 자기 나름대로의 열심, 교회를 이념의 장으로 만들고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통에 전국 모든 목회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분당우리교회는 케논, 하나님 말씀이 기준 되는 교회가 되고,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기준이 되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대웅 기자

## 한교총 류영모 대표회장, 물량·개교회주의 등 회개 촉구



한교총 류영모 대표회장(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을 비롯한 대표회장단 및 주요 임원들과 사무총장단 등은 20일 정기총회 속회 직후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을 방문해 기도도로 새 회기를 시작했다. ©송경호 기자

정관 개정을 통해 ‘1인 대표 체제’로 전환한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의 류영모 신임 대표회장이 첫 일정으로 서울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을 찾아 “한국교회가 낮은 곳에 서겠다”고 신회 회복을 다짐했다.

류 대표회장과 4인의 공동대표회장, 주요 임원과 사무총장단 등은 20일 정기총회 속회 직후 오후 2시 양화진을 방문해 기도도로 제5회기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류 대표회장은 “한국교회는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할 뉴노멀의 세계로 걸음

을 옮기고 있다”며 “제5회기 첫 걸음을 어떻게 내디뎌야 할 것인지 고민하다 양화진을 찾았다”고 전했다.

이어 “올라오다 보니 1903년 원산대부흥운동 주역, 하디선교사의 묘지를 봤다”며 “그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쳤다. 한국교회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회개”라고 강조했다.

그는 “물량주의, 물질주의, 번영신학, 성공신학, 개교회 지상주의에 빠졌던 지난날을 회개하고 십자가 밑으로 내려가야 할 때”라고 했다.

이대웅 기자

## 송태섭 목사, 한교연 대표회장 연임... “한국교회 보호할 것”

한국교회연합(이하 한교연) 제11회 총회가 16일 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대 재적 207명 중 참석 88명과 위임 38명을 합한 126명이 참석으로 과반수인 104명을 넘겨 총회가 성수됐다.

이날 총회에선 현 대표회장인 송태섭 목사가 단독 임후보해 총대들의 만장일치 박수로 제11회 한교연 대표회장으로 추대됐다. 이어 신임 상임회장으로 김학필 목사·김효종 목사·원종문 목사가 선출됐고, 서기에는 홍정자 목사가 임명됐다.

대표회장직을 연임하게 된 송태섭 목사는 “올해 교단 14개와 단체 5개 등 총 19곳이 한교연에 가입했다. 다른 연합기관과도 소통하면서 통합의 길을 분명히 마련하겠다. 한교연은 한국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면서 한국교회연합의 삼겹줄을 이뤄내 복음의 지경을 넓히겠다. 성경으로 돌아가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고 파수꾼의 역할을 견지해 악법 제정을 막아 내겠다”고 했다.

이어 “연합기관 사역은 신임 대표회장 한 사람의 역량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한국교회와 다

음세대 바로세우기를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앞서 1부 개회예배에선 양병희 목사(증경 대표회장)가 ‘들어야 할 소리’(이사야 55:3)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양 목사는 “주변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들린다. 진실과 거짓이 섞인 모습도 보인다. 이런 혼돈의 시대에 영적인 지도자인 여러분은 양심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역사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 이 역사는 장차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이자 거울로, 반복되는 실패를 막아야 한다. 이는 국민과 시민의 소리이자 내 나라를 사랑하는 목소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우리 영혼과 한국교회 및 민족이 살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축하패 및 공로·감사패 수여식에선 서정환 목사(예장 순장 총회장)·안충수 장로(한국기독교기법관)가 축하패를, SUR코리아 정호영 대표가 감사패를 각각 받았다.

송경호 기자

# CDTV 미주기독교일보

미주기독교일보(CDTV)에서는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를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최순환 목사의 ‘스토리가 있는 설교’를 통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시 한번 리뷰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고, 이 소명 교수님의 ‘Zoom 목회 나도 할 수 있다’로 온라인 목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GO’를 통해 평신도들의 시각에서 본 교회 속 관계를 솔직하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콘텐츠를 통해 미주 한인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미주기독교일보 유튜브에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순환 목사의 스토리가 있는 설교



Zoom 목회 나도 할 수 있다



신문GO

유튜브에서 'CDTV 미주 기독교일보'를 검색하세요



NOW OFFERING

IB PYP(K~5<sup>TH</sup>) • MYP(6<sup>TH</sup>~10<sup>TH</sup>)  
DP(11<sup>TH</sup>~12<sup>TH</sup>)

100% UC대학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 NCA 사립학교

NC



## Now Enrolling

“이래서~ 믿을 수 있구나!”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를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 (타사립학교 대비)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 (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3119 W. 6th Street,  
LA, CA 90020

# 213.487.5437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 삶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내셔널)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3부예배(저세대에)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원대학/EM 오후 2:00 수요일기도모임(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만2세를 섬기며, 이만2세를 위로하며, 선교를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Ede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영성예배 오후 7:00  
이침달음예배 월-토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동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1:00  
Heart of David 금요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대

24325 Crenshaw Blvd, #241, Torrance, CA 90505  
T. (310) 905-2228 / newchurchdtdla.com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1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쪽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디오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이 사랑하시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30 (화-토)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지역 : 유아원 지역, 후드 지역, 장학 지역, 십자가 지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호를, 소천 초 정신의 호를, 바른교회관의 호를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영성기도회 오후 8:00  
평신도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자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세울 배와 함께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6: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 (토)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tarng.org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송재호**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랑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아침)기도회(미역)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주일 1부 오전 9:00 JO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사랑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배에 들어오 내 곁에 빛이 나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아침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한아침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영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발리제들 OC제들 최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예배 오후 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EM 오후 1:30  
유년부 영아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성령집회 월-7:45 새벽기도회 월-5:30/토 오전 6:00  
새벽기도회 월-5:30/토 오전 6:00 2351 W. Orangeforge Ave., Fullerton, CA 92633  
12514 Haskell St., Northridge, CA 91325 (818)833-5887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리성(Calling), 고치교(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NI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 질 바이든, 위스콘신 총기난사 사건 현장 찾아



질 바이든 여사. ©포스뉴스 화면 캡처

미 대통령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6명의 사망자와 60여 명의 부상자를 낸 위스콘신주 와케샤(Waukesha) 총기난사 사건의 희생자들을 최근 만나 위로를 건넸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바이든 여사는 얼마 전 와케샤 커티러 파드에서 발생한 총격 희생자들을 기념하며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여사는 “이러한 잃어버림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도 말할 수 없다”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특히 상상도 할 수 없다. 미국이 와케샤와 함께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와케샤 시청에서 ‘춤추는 할머니’(Dancing Grannies) 극단을 만났는데, 이번 사건으로 이 극단의 단원 3명이 목숨을 잃었고, 6명의 가족 중 4명을 잃은 이들도 있었다.

당시 범죄 전과가 있던 브룩스는 경찰이 자신의 집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에 대응하자 SUV 차량을 몰고 퍼레이드에 뛰어들었다.

이 테러로 사망한 사람은 8세 잭슨 스팅스, 79세 버니시아 솔렌스, 71세 리애나 오웬 52세 타마라 듀란드, 52

세의 제인 쿨리치, 81세의 빌헬름 호스텔 등이다.

스팅스는 당시 바우케샤 블레이저스 리틀 리그 야구팀과 함께 행진 중이었다. 그의 형제 역시 중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우케샤 블레이저스의 제프 로저스 회장은 페이스북에 “스팅스는 훌륭하고 친절하며 재능 있는 선수였고, 그와 함께 하는 것이 즐거웠다. 잭슨은 중독성 있는 미소를 지으며 마음이 어렸다. 그는 모두가 응원하는 팀의 남자였고, 여러분은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1월 1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와케샤를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손 더피 전 위스콘신주 공화당 하원의원을 포함한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로 이 비극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지역이 대부분 백인 기독교인 및 공화당원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강혜진 기자

## 토네이도로 폐허된 교회 목사 “그래도 복음은 영원할 것”

지난 10일 밤 미국 중서부를 강타한 토네이도가 캔터키주를 휩쓴 가운데, 주 전역에서 최소 74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사고 발생 48시간도 되지 않아 폐허가 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목회자의 사연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헤드라인에 따르면, 그레이브스 카운티의 메이필드에 위치한 퍼스트 침례교회의 웨스 파울러 담임 목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인들에게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자는 내용의 초대장을 올렸다.

파울러는 초대장에 “주님은 친절하시며, 이 비극적인 상황을 통해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며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뿐이다. 그리고 그때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때”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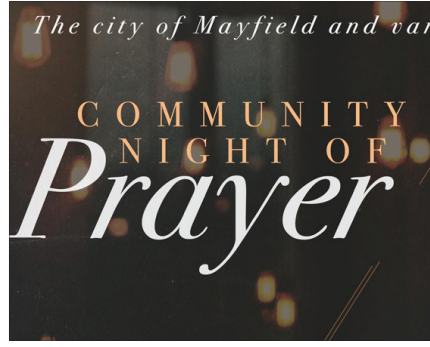
다음날 주일, 이 교회의 신자들과 주민 수십 명은 교회를 방문했고, 선 채로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예배를 드린 것으로 전해진다.

파울러는 트위터를 통해 “메이필드에 있는 건물 대부분이 파손됐고 많은 것들이 무너졌지만, 복음은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라며 “주님께서는 어떻게든 이 힘든 시기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줄 믿는다”고 강조했다.

퍼스트 침례교회의 교인인 베리 파울러는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잔해 속에서 파괴되지 않은 커다란 흰색 십자가에서 희망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는 “길 맞은편 교육관에서 우리가 창문에 걸어둔 십자가는 그대로 있고 창문은 사라졌다는 사실이 놀랍다”라며 “다른 모든 것은 사라졌지만 십자가는 여전히 서 있다”고 덧붙였다.

토네이도가 몰아닥친 당시 상황에 대해 그는 “파울러와 그의 가족은 젊은 목사 가족과 함께 교회 지하실로 대피했다. 이곳에는 두 시설을 연결하는



교회 시설이 토네이도로 크게 파괴됐지만 기도를 쉬지 않는 퍼스트 침례교회 ©퍼스트 침례교회

터널이 있다”며 “폭풍우가 점점 다가오고, 점점 거세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정전이 됐다. 터널은 파편과 흩으로 가득 찼고 연기가 자욱했다. 매우 무서운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파울러 목사는 당시를 회상하며 “우리는 관촬을 것 같지 않았다. 아내는 걱정했고, 나중에는 우리가 죽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끔찍한 기분이었다. 토네이도는 30초에서 1분간 지속되었고 더 길게 느껴졌다”면서 “잔해와 파괴 현장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고 매우 참혹한 장면이었다. 천장은 뜯겨 나갔고 창문이 깨져 있는 등 교회 대부분이 파손됐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그는 “바로 지금, 마을은 이 비극 가운데서 함께 하나로 뭉치고 있다”면서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지만, 우리는 재건할 것이며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네이도는 아칸소, 일리노이, 켄터키, 미주리, 미시시피, 테네시주 등을 휩쓸며 1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낳았다. 국제 기독교 구호단체 ‘사마리아인의 지갑(Samaritan’s Purse)’은 켄터키, 아칸소주에 장비와 보급품을 실은 지원팀을 파견했다.

특히 메이필드에 있는 양조공장은 토네이도로 인해 지붕이 무너져 직원 수십여 명이 사망하는 등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김유진 기자



# 미 법원, 동성결혼 촬영 거부 사진 작가에 “서비스 제공하라” 판결

## 자유수호동맹 “개인의 종교적 신념 침해” 항소 의지

동성 결혼 예식의 촬영을 거부한 미국 기독교 사진사에게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반대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13일 뉴욕 서부 지방 법원의 프랭크 제라시 판사는 사진사인 에밀리 카펜터가 뉴욕주를 상대로 낸 차별 금지법에 대한 예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판사로 지명된 그는 판결문에서 “뉴욕은 성적 취향에 관계없이 개인이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관심을 갖고 있다”라며 “조정 조항은 원고에게 적용되는 바와 같이 제한적으로 조정돼 있다. 뉴욕의 공공시설법은 중립적”이라고 결론 내렸다.

카펜터의 법률 대리를 맡은 자유수호동맹(ADF)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을 비판하며 제2항소 법원에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조나단 스크릭스 ADF 선임고문은 성명에서 “법원의 결정은 예술가들에게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는 메시지를 말하게 하며, 벌금을 부과하고, 사업을 중단하거나, 그들을 감옥에 가두도록 강요하는 위험한 길로 계속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성 결혼을 축하하는 웹사이트 제작을 거부한 기독교인 웹 디자이너 로리 스미스의 사례를 언급했다.

스미스는 자신의 회사가 결혼식 웹사이트 디자인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때 동성 결혼 축하 웹사이트를 제작해야 한다고 요구한 콜로라도주 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연방 항소법원은 그녀에게 종교적 신념과 상충되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결했고, ADF는 즉각 이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항소했다.

스크릭스는 “에밀리나 로리 스미스와 같은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살고 일하도록



사진작가 에밀리 카펜터 ©에밀리 카펜터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며 “그들은 행복하게 모든 사람을 섬기고 있다. 결혼에 대한 견해를 포함하여 그들의 종교적 신념과 모순되는 메시지를 홍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카펜터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공공장소에서 불법적인 차별 관행을 금지한 뉴욕 행정법 제296.2조 a항에 이의를 제기했고, 뉴욕 법무장관 레티티아 제임스, 뉴욕주 인권국 임시국장 조나단 스미스, 서명 카운티 지명검사인 위든 위트모어를 고소했다.

이 조항에 대해 스크릭스는 “동성 약혼이나 결혼식을 축하하도록 강요하고, 그녀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메시지를 홍보하게 하며, 종교 예식에 참여하도록 강요한다”라며 “이와 마찬가지로, 출판 조항은 에밀리가 미래의 고객에게 동성 약혼 또는 결혼식을 축하하는 서비스인지를 묻는 질문조차 금지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뉴욕주의 차별 관행 금지법이 “사업상의 피해와 10만 달러의 벌금을 비롯해, 그녀의 신념에 반하는 예술 작품을 만들도록 강요하거나, 사업 허가 취소,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 갤럽 “예배 출석교인이 비신자보다 정서 회복력 뛰어나”



©Pixabay

미국 갤럽이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매주 종교 예배에 참석하는 신자들이 비신자보다 정신 또는 정서적 건강이 더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헤드라인스에 따르면, 이 여론조사는 지난 11월 갤럽이 미국 성인 8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분석 결과이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매주 1회 이상 예배에 참석하는 신자들은 정신 및 정서적 건강 지표에서 14개 소집단 중 1위를 차지했다. 그들 중 44%는 자신의 정신 및 정서적 건강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작년의 46%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이들은 10만 달러 이상 소득을 버는 미국인(41%)보다 높았으며, 공화당원(42%), 민주당원(28%), 무소속(33%)보다도 정신 및 정서적 건강이 더 우수했다.

반면, 교회에 매주 또는 한 달에 한번 출석한 응답자는 38%가 자신의 정신 및 정서적 건강이 우수하다고 답

했으며, 아예 출석하지 않는 사람은 29%만이 이에 동의했다.

현재 미국인의 정신 및 정서적 건강은 광범위한 봉쇄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미국인들 가운데 34%만이 그들의 정신 및 정서적 건강을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2019년 43%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

메건 브레넌 갤럽 컨설턴트는 “매주 종교 예배에 참석하는 미국인들은 덜 종교적인 사람들보다 정서적으로 더 회복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2020년 이전에 미국인들의 정서적 건강에 대한 수치는 계속 42% 또는 그 이상이었고, 2001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45%에 달했다”면서 “미국에서 처음 발생한 지 20개월간 대중들은 대유행의 정서적 영향과 계속 씨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신태섭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951-3153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저녁 7:30 김경환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세일을 행할지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이종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310) 618-2222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310)370-5500 / www.torranceccg.org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구봉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청년부 오전 9:30, 11:30  
 한아대학원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521-0991 / F.(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가족예배 매일 4부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백정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매일 마지막 금요일)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M)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 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일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2부예배(EM) 주일 11:00a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288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임학춘 담임목사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성서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령의 열매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말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949) 854-4010 / F.(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신웅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아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사우고 복음으로 다스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6: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미루지 않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714) 446-6200 / F.(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매일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714) 893-1652 / krco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박훈 담임목사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다양한 기독교정보**

**기독교일보 유튜브**

유튜브 ‘미주 기독교일보 CDTV’ 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주 기독교일보 유튜브 토크**

**신문 GO**

**You Tube**





# 이탈리아 가톨릭 교구, “산타는 없다” 발언 공식 사과



©Unsplash

이탈리아의 한 가톨릭 교구가 성탄절을 2주 앞두고 아이들에게 “산타클로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주교의 발언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시칠리아에 본부를 둔 교구는 SNS를 통해 안토

니오 스타글리아노 주교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스태글리아노 주교는 최근 ‘성 니콜라스의 축제’에 참석한 아이들에게 “산타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의 빨간 의상은 코카콜라의 마케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교구 대변인인 알렉산드로 파올리노 목사는 공식 페이스북에 “무엇보다 어린아이들을 실망시킨 이러한 발언과 관련해 주교를 대신해 사과한다. 스타글리아노 주교는 다른 의도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파올리노 목사는 “교구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무너뜨리지 말고, 삶에 긍정적인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산타클로스는 베품, 관용,

나눔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인 이미지”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러나 이러한 이미지가 의미를 잃게 되었을 때, 산타클로스의 소비자주의, 소유, 구매, 재구매 욕구를 보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재평가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기독교계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세속적 기념 행사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남침례회 북미선교위원회 차세대 전도책임자인 웨인 프루이트는 과거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부모들이 산타의 재미에 뛰어들지만, 반면 이 주제에 완전히 긴장하는 부모들도 있다”며 “아이들에

게 산타는 신데렐라와 같다. 실존 인물은 아니지만 예술(영화, 장식 등)에서 이야기하고, 즐기고 보는 재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플루이트는 “이 선택은 그들이 진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재미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산타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멋진 영화도 볼 수 있고, 산타 장식들도 혼란 없이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여전히 학교나 교회에서 부모에게서 산타가 진짜라는 말을 들은 아이들에 대해 민감할 필요가 있다. 산타에 대한 교육은 또래가 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 부모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 IS 연계 무장단체, 모잠비크서 목회자 참수

테러 단체 ‘알-샤바브’로 추정... 남편 목 들고 경찰서 가라’ 강제해



모잠비크 부녀자들(상기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Pixabay

모잠비크에서 이슬람국가(IS)와 연계된 극단주의자로 추정되는 과한들이 목회자를 참수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ICC)에 따르면 무장 세력은 지난 15일 카보 델가도주의 노바 잠베지아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를 참수했다.

이후 그들은 절단된 머리를 목회자의 아내에게 건넨 후, 그의 머리를 들고 강제로 모잠비크 경찰서로 가게 한 것으로 전해진다. 목회자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목회자가 살해된 다음날, 필

리페 뉴시 모잠비크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르완다와 주변 국가들이 급진주의 이슬람 지하디스트 반군을 진압하는 데 도움을 준 후, 올해 테러 공격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달 초, 영국에 기반을 둔 인권감시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카보 델가도의 ‘알-샤바브’라 알려진 무장 단체가 여성과 소녀들을 납치한 뒤, 그들의 대원들과 강제 결혼을 시켰다고 보도했다.

지난 11월에는 IS와 연계된 무장 세력이 카보 델가도주의 미우둠베와 마코미아 지역을 급습해 여성과 어린이 등 50명

이상을 참수하고 남은 주민들을 납치했다.

인도양 해안에 위치한 카보 델가도주는 석유 매장량이 풍부한 지역으로, 2017년 이후 지하 운동의 출현으로 인해 수천 명의 이재민과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18년, 알-샤바브는 이라크와 시리아의 IS에 충성을 맹세했으며, 2019년 IS는 이 단체를 연계 단체로 승인, 카보 델가도의 테러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해왔다.

‘무장충돌 위치 및 사건 데이터 프로젝트(ACLEDD)’에 따르면, 이 주에서는 2017년 이후 최소 776건의 조직폭력 사건이 발생했으며, 2021년 1월 기준 조직폭력으로 인한 2,578명의 사망자와 1,305명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

유엔은 2017년 이후 이슬람 극단주의로 인해 발생한 모잠비크의 난민이 74만 5천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극단주의자들은 수많은 기독교인과 교회, 학교 등을 집중 공격한 것으로 전해진다.

모잠비크는 올해 처음으로 오피도어가 선정한 세계기독교 박해국가 중 45위에 올랐다.

김유진 기자

##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17년 연속 채택

미송환 전쟁포로와 이산가족 문제 등도 거론

유엔총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올해로 17년째다.

유엔총회는 16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를 열어,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코로나 19 백신 협력을 당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달 유엔 제3위원회를 통과한 이 결의안에는, 구체적으로 북한 땅에서 정권에 의해 오랫동안 진행 중인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고, 북한 인권 문제의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및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장 책임 있는 자’는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표현으로, 2014년부터 8년 연속으로 해당 문구가 포함돼 왔다.

또 “전 세계 한국인을 비롯한 이산가족 문제의 중요성과

긴급성”이라는 문구와 함께, 2018년 남북정상회담 약속 이행 등 이산가족 상봉 필요성이 거론됐다.

아울러 북한 측에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등 관련 기구와 협력해 코로나19 백신을 적시에 공급 및 배포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미송환 전쟁 포로와 후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혹을 우려한다는 문구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이날 공개 발언을 통해 “(이 결의안은) 유럽연합과 미국 등 적대 세력이 추진한 이중잣대와 적대 정책”이라며 “북한을 향한 정치적 동기가 있는 도발로서, 고려할 가치가 없다. 우리 국가에서는 결의안에 거론된 이른바 인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존 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은 2019년 이후 3년 연속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빠졌으며, 이란과 쿠바는 공개 발언으로 북한을 지지했다.

강혜진 기자



목회(목회) 길자연 목사

현역 목회자 대상으로 한 (국민일보) 설문조사에서 가장 리더십이 좋은 목회자로 선정된 바 있다. 한평생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과 기도를 전하며 영성 목회의 길을 걸어왔다. 깊은 영성은 명의(名醫) 칭호를 받으신 부친과 동대문 일대 거지들에게 국밥을 끓여 대접할 정도로 섬기는 삶을 사셨던 모친에게서 물려받았다. 절름노도의 젊은 시절을 보내고, 부친에 이어 한의대를 졸업해 개업 한의사로 왕성하게 활동하다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입학했다. 이후 침통을 놓고 성경을 붙잡고 탁월한 영성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고 있다. 양성교회 원로목사이고, 현재는 양평에서 백합전원교회를 섬기며,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서산의 낙조처럼 살아가고 있다.

서울왕성교회, 과천왕성교회의 오늘이 있기까지 숭한 직책을 걸어오면서 기독교북한선교회 이사장(1984),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이사(1991), 총회신학대 재단이사(1995),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1998), 개신교연합부활주일 연합예배 대회장(1999), 영성 목회연구회 총재(1999),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통일선교대학 2대 학장(2000), 기독교북한선교회 총재(2002),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운영이사장(2002), 제10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2003-2004), 칼빈대학교 총장(2007-2011), 제17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2010-2011), 제5대 총신대학교 총장(2013.12) 등을 역임했다.

1941년 4월 19일생으로 1964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한의학과를 졸업하였다. 2001년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량스런 대광인상 수상(2003), 지량스런 목회자상 수상(2003), 서울기독교대학교 명예철학박사(2004), 미국 루이지애나 벨리스트대학교 명예교육학박사(2005)를 받았다. 저서로는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 《가지고 가는 사람, 두고 가는 사람》, 《문제 곁에 있는 해답》, 《고난 속에 숨은 축복》, 《길자연》, 《하나님을 향한 사람 1,2》, 《여호와의 소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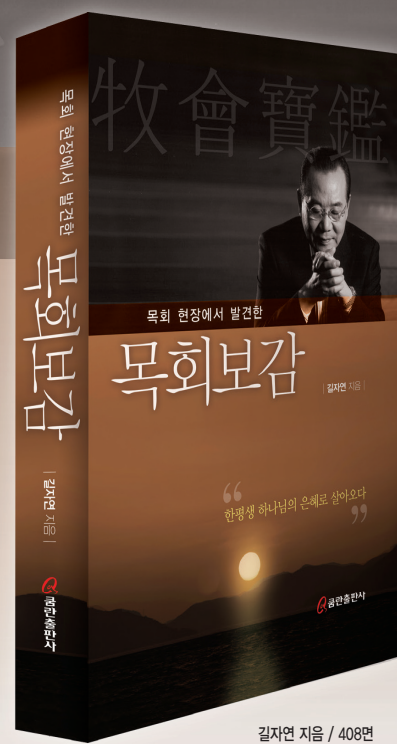
길란출판사 • 한글인터넷주소 : 공인.관리출판사 • 홈페이지 www.gilran.co.kr  
• 서울 중로구 이화정길 6 ☎ 02-747-1004(내)

목회 현장에서 발견한

# 목회보감

이 책은 부제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다”처럼 길자연 목사의 은혜목회 회고록으로 목회현장에서 발견한 목회보감이다.

내용은 세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 파트는 “나의 인생, 나의 고백”으로 가계 소개와 목회자로 소명 받은 과정이며, 제2 파트는 “나의 목회 사역”으로 영성목회와 교회부흥, 리더십, 설교 등이며, 제3 파트는 “한국교회를 향한 원로의 제언”으로 연합운동과 신학교육 현장의 사역을 통한 권면들이다.



길자연 저음 / 408면  
22,000원 / 신국판 양장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 섬김에 비례하는 영광

빌립보서 2:1-11



서울성인교회 목사 장재효

섬긴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기대의 가능성이 믿어질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세상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곳은 영원한 천국은 아닙니다. 천년 동안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소망의 믿음을 위하여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얼마나 육적 인간에서 영적 인간으로 바뀌어졌는가를 바탕으로 천년동안 온전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훈련 기간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필요한 것입니다.

천년이 차면 모든 것이 없어지고 우리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고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히 사는 신의 세계를 영원한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사랑으로 보살피고 위로하거나 성령으로 영적교제를 통한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시도하는 일들은 반드시 공허와 자비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공허이나 자비는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더불어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어 어떤 일이든지 다름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편을 존중하고 나보다 낮게 여긴다면 이런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각박한 세상인심에 밀리고 쫓기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대이고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졌을 때 가능합니다. 교회 일은 주님의 남은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목자와 더불어 모든 성도들이 영적 공동체로 혼연일체가 되어 자기 입장을 최대한 희생하고 봉사, 충성함으로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교회에 엄청난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해서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입장에서 예수님 더 잘 섬기자는 목적의 뜻을 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성령으로 영적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다툼과 분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데 생각의 차이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러 오신 것이며 오히려 목숨을 버려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섬김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섬기기를 힘쓰기 보다는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모양으로 걱정거리가

되어지는 언동을 나타낸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잘 믿는 척하고 남들에게 그런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보여주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챙겨주는 것처럼 타인들에게 의식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믿음이 없는 언행을 보이게 되면 이 사람들을 통해 목회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목회에 훼방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목회에 유익하게 기도와 봉사로 협력하며 은혜 분위기 조성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시험에 든 사람을 바로 세워주어야 합니다. 누가 보든 안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는 숨은 봉사자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기대를 거시고 아주 귀하게 여기셔서 더 좋은 조건으로 힘을 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이 잘 자란 사람은 하나님이나 사람들, 가족들 앞에 전혀 지적당하거나 걱정을 끼치고 욕먹는 일이 없도록 처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더욱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살피기 이전에 자기 일을 우선적으로 다 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빌2:4). 자기 집은 엉망으로 해놓고 교회 일 한다고 사방으로 돌아다닌다면 그것은 오히려 욕먹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바울은 4절 이하에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믿음이 여러모양으로 성숙해 가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보고드릴 입장이 되어 질 것이며 이것이 곧 목회성과이며 보람이 되어진

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하셨고 요한복음 1:14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하더라”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6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분이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2:7-8)는 말씀처럼 종의 모습을 밀바다까지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목숨을 버려 희생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다시 높이어서 하늘의 천사들과 땅의 모든 성도들과 땅 아래 있는 죽은 자들에게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빌2:9-10).

교회 안에서 잘난 척하고 분위기 잡고 큰소리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갈 수도 없을 뿐더러 혹여 간다고 해도 천년이라는 세월을 부끄럽게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생활을 통하여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겸손히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는 식견을 가지고 주님을 바로 섬기는 지혜를 보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주 귀하게 보시고 그의 낮아진 만큼 다시 높이셔서 영광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 성인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기독교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기독교일보 제공

# ‘무료 코로나19 PCR 검사 및 항체 검사’

기독교일보는 LA 한인타운 인근지역 교회나 단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PCR 검사 및 항체 무료 검사를 제공한다. 최근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 19 전파 고위험 지역에서는 백신접종 2회를 마친 주민도 실내 및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델타 변이가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해서 방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백신 접종 완료 보다 중요한 것은 백신을 맞은 이후 자신의 신체에 코로나19에 대항할 항체가 얼마나 생성되었는지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따라 기독교일보는 크리스티뷰 클리닉 연구소와 공동으로 지역 사회 보호와 커뮤니티 안전을 위해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근거리의 위치한 교회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PCR검사 및 항체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코로나 19 PCR 검사 및 항체 무료 검사를 원하는 15명 이상의 교회는 예약을 통해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나 소수의 인원도 가능하다. 또한 해외나 한국 방문으로 코로나 검사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도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는 2일~3일 뒤 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과 COVID-19 백신 접종자는 접종카드를 지참하면 된다.



## 무료 검사 예약 (213)739-0403, (213)434-1170



강준민 칼럼

성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

성탄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 속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구유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집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인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이 날마다 예수님의 탄생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역사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구분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곧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성탄을 묵상하는 중에 성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는 우연은 없고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는 중에 깨달은 하나님의 지혜를 몇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적합한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조급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왔을 때 예수님을 여인의 품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때

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갈 4:4). 때가 왔다는 의미는 여인이 아이를 잉태한 후에 10개월을 꼭 채운 때를 의미합니다. 암탉이 달걀을 품에 안고 21일을 꼭 채운 때를 의미합니다. 지혜는 기다림에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때를 분별하는 데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적합한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둘째, 자신을 은밀히 감추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은밀히 보내셨습니다. 만민을 구원할 구세주가 마구간에서 은밀히 태어나실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속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비밀을 오랫동안 감추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골 1:27).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감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든 너무 드러나면 공격을 받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게 됩니다.

셋째, 조용히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밤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탄 찬양 중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109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조용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조용히 시작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조용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일을 조용히 시작하십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조용히 시작하는 것

이 지혜입니다.

넷째, 작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한 알의 작은 밀알처럼 태어나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처음부터 어른이었습니다. 하와도 처음부터 어른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작은 아이로 태어나셔서 서서히 성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작은 것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실 때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 속에 거대한 잠재력이 담겨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것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작은 씨앗 속에 큰 나무가 담겨 있습니다. 거대한 숲이 담겨 있습니다.

다섯째, 낮은 곳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빌 2:8상).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음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심으

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평범하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목수의 가정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평범한 목수의 집에 태어나셔서 목수로 생활하셨습니다. 지혜는 평범함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비범함이 담긴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성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삶 속에 적용하십시오.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감출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조용히 시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낮은 데 처할 줄 아는 겸손이 지혜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탄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적용함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연재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기드온동족성교  
박상원 목사

그러는 중에 운신도 어려워 집에 드러누워 있던 반원이 상황이 얼마나 급했으면 할떡거리

며 달려와서는 내게 얼른 마을에 가 보라고 재촉했다. 사연인즉 굶주림에 시달리던 순임(가명)이 엄마가 두 살 난 딸을 토끼라고 잡아서 가마에 싣어 가지고는 소금과 바 꾸겠다고 돌아다니는 것이었다. 급기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참혹한 상황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당시 30세도 안 된 새색시 순임이 엄마는 정신이 나가서 두 살 난 딸을 삶아서 사발에 머리와 손바닥을 담아 가지고 히히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

러는 순임이 엄마를 보니 나오어쩐지 정신이 혼미해져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칠졌다. 이때도 하나님의 지엄하신 음성이 들리는 듯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칠 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레 26:27~29).

나는 이 말씀이 제사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좇지 않아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재앙

을 내리시는 것으로 들렸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 마을에 이 같은 재앙을 내린 것은 흠 없는 소로 번제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자책한 것이다. 순임이 엄마의 정신 나간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오버랩(중복)되면서 나조차 혼미해져서 사발에 담긴 아이의 머리를 꺼내 들고는 순임이 엄마의 코앞에 들이대며 소리쳤다.

“이 미친년아! 이게 누군지 아니? 네 딸년이다, 네 딸. 오냐, 네 딸을 잡아먹고 제발 죽지 말고 천년만년 살아라. 이 미친년아!”

그런들 무슨 소용이라. 이미 돌

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 땅에 재앙이 미치고 있었다. 생각해 보라. 밤 한 술만 먹이면 금세 생기가 돌아서 눈을 반짝반짝 빛낼 아이들이 그 밤 한 손가락이 없어서 숨이 넘어가고 있다면, 과연 어떤 부모가 미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악한 불에 삶아서인지 설익은 아이의 얼굴에 박힌 희뿌연 두 눈이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울부짖는 것 같았다.

“반장 큰아버지가 진작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번제를 드렸더라면 내가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계속)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t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직접재단/직접재봉  
남녀맞춤/명품웃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http://www.samsungmoving.com)

**문의 1-877-580-2424 사무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 성탄의 예수님

현대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상처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경쟁이 극심해지고, 경제와 사회의 변화가 심하고, 대형사고와 어두운 소식이 빠르게 전 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마음속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의 틀이 있는데, 상처를 이기지 못하면 언제나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식의 남의 탓으로 해석하는 틀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야곱은 늘 쌍둥이 형과 경쟁하며 속이고 쫓기는 기복이 심한 삶으로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상처 속에 있을 때는 늘 "자기가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 난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약한 삶을 산다."고 해석했습니다. 상처가 주는 또 하나의 특징은 '집착'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너무 배

고프고 못 먹었던 상처가 있는 사람은 커서도 음식에 집착합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팔 죽 한 그릇을 이용해서라도 사려고 할 만큼 장자권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라헬에게 집착하여 7년씩 두 번, 무려 14년이나 종살이를 했고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하여 자식들끼리의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야곱의 상처 때문에 형에서가 상처를 입었고 아버지 이삭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레아와 다른 자녀들이 또 다른 상처를 입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제 가슴 속에 있는 이 상처 받은 것을 좀 보세요." 그러면 서 사실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자기의 받은 상처가 10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20, 50, 100의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상처를 치유 받지 못한 사람이 리더가 되면 주변에 쓴말이 흐르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항상 최악의 순간을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잘못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행복하면 오히려 더 불안해하면서 버림받기 전에 자기가 먼저 버리겠다는 엉뚱한 생각과 극단적인 행동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까지 치료해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상처투성이의 사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변화되었습니다.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체험함으로 자기가 귀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상처 속에 있을 때는 늘 가면을 쓰고 자기를 위장하거나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막가는 말과 행동도 서슴치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연약한 모습으로도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상처를 치료받은 후 더 포용력이 있고 당당해져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잃고 이삭만 얻었고, 이삭도 에서는 잃고 야곱만 얻었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극복한 야곱은 12아들 중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도록 품을 수 있었습니다.

성탄은 우리의 삶을 치료하고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성탄 예수 사랑 나누기'를 통해 힘들고 외로운 선교사님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이상한 홈리스

산호세 인근에 있는 연합 집회에 갔을 때, 젊은 목사님에게 팬데믹에 잘 버티고 있으시냐고 안부를 물었더니, 대뜸 "홈리스에게 교회를 뺏겼습니다"라고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교회에 세 들어 한인교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팬데믹 동안 모일 수 없어 교회 사무실에 가끔씩 와서 우편물만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때 교회 마당에 홈리스들이 텐트를 치고, 거주하기 시작한 것을 알게 되어 걱정이었다고 합니다. 마침 교회 건물 옆에 붙어 있는 사택에 불이 나서, 교회 관리인이 사택 집을 정리할 때 홈리스가 도와주었길래, 추운 겨울을 바깥 텐트에서 지내지 말고 교회 체육

관에 들어와 잠만 자라고 호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예배당에 아무도 방문하지 않는 팬데믹 동안, 홈리스는 체육관에서 잠을 자면서 점점 자기의 영역을 넓혀 갔다고 합니다. 체육관에 밤새 전깃불을 켜 놓고, 화장실을 맘대로 사용하고, 심지어 교회 체육관 주소로 자기의 우편물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인 목사님이 우편물 확인차 가끔 들러 체육관을 들여다보면, 홈리스의 집이 체육관에 점점 쌓이더니, 나중에는 TV까지 설치하고, 게임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상황을 파악한 미국 교회는 홈리스를 내보내기 위해서 경찰에 호소도 했지만, 인권 운운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하면서 그를 강제로 내보낼 수 없다고 했고, 고소한다 해도 소

송비용이 교회가 감당하기 힘든 액수였다고 합니다. 결국 미국 교회는 완전히 폐쇄되었고, 여기에 세 들어 살던 한인교회도 예배 장소를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성탄은 정반대의 홈리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홈도 아니고, 텐트도 아닌,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집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마 8:20). 진정 예수님은 홈리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의 집을 빼앗는 홈리스가 아니었습니다. 홈리스의 홈이 되어주신 분이었고, 거처가 없는 이에게 쉼터

가 되어주신 분이었습니다.

홈리스 예수님이 찾아오신 마음은 다시 훈훈한 사랑으로 따뜻해집니다. 잃어버린 홈을 되찾게 되는 스토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집을 떠났던 자녀들이 돌아오고, 방황하던 남편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아내가 따뜻한 저녁밥을 짓고 주일이 되면 온 가족이 하나님의 집, 베델을 향해 예배드리러 갑니다. 성탄은 집을 잃고 헤매는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홈, 천국을 약속하신 날입니다. 홈리스의 홈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홈리스가 되신 날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홈리스가 아니라, 자기를 비워 영원한 홈을 찾아 주신 홈리스이십니다.

**생명보험 IRA, Annuity** Lic.#0B33695 Consultation Specialist  
**Jun Lee (213)361-7771** joyjoe88@yahoo.com

20 YEAR TERM LIFE INSURANCE							AL FLEXIBLE LIFE INSURANCE						
Age	\$300,000		\$500,000		\$1,000,000		Age	\$100,000		\$300,000		\$500,000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30yr	\$17	\$20	\$25	\$30	\$45	\$54	30yr	\$50	\$51	\$150	\$153	\$250	\$255
40yr	\$24	\$30	\$36	\$46	\$67	\$86	40yr	\$78	\$80	\$234	\$240	\$390	\$400
50yr	\$43	\$60	\$68	\$97	\$131	\$188	50yr	\$127	\$132	\$381	\$396	\$635	\$660
60yr	\$116	\$169	\$189	\$278	\$373	\$550	60yr	\$239	\$242	\$717	\$726	\$1,195	\$1,210

(20년 고정가격 순수 Term 생명보험 최상급 비보험자 Rate 월 보험료/시이,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 산출이 다를 수 있음) (학자금 조성, 노후 연금, 원금보장 저축성 종신 생명보험)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 부교역자 청빙

필그림선교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전파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위한 Full-Time 교역자를 청빙합니다. 청빙되신 분은 선교적 교회 리더십 훈련을 받으며 사역하게 됩니다.

- 모집분야: 목양 및 선교적 공동체 사역 (2명)
- 지원자격:
  -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소명이 분명한 분
  - 정규신학교 M.Div 졸업
  - 미국 내에 거주 및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이력서 (사진 첨부, 졸업증명서, 목사 안수증 포함)
  - 자기 소개서 (가족소개 및 개인 소명문 포함)
  - 신앙 고백서
  - 설교 영상 2편 (필요에 따라 예배 설교 요청)
  - 추천서 2부 (추천인 연락처 기재)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제출 서류 마감일: 2021년 12월 18일 (토)  
서류 제출 (온라인 접수만 받습니다)  
E-Mail: HR@NJPMC.ORG 문의: HR@NJPMC.ORG

**필그림선교교회**

## (텍사스 휴스턴)함께 사역할 신실한 동역자를 찾습니다.

Full time

### 자격과 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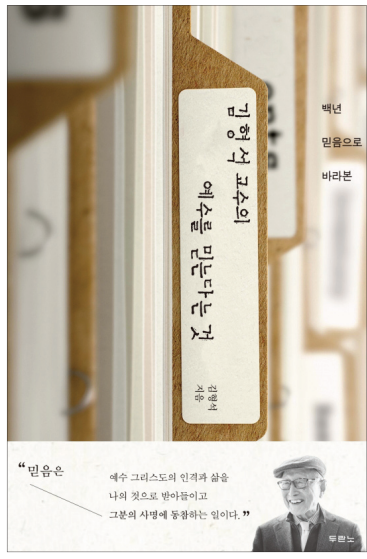
- 예배 중 동시통역 (한국어를 영어로)
- 찬양사역 예배인도 (설교자와 협력)
- 담임목회 협력 (KM과 EM사역 연결 역할)
- 전화: 832-366-1103
- 이메일: jhoyee@hotmail.com

**텍사스 휴스턴 한인중앙장로교회 청빙위원회**



백년 믿음으로 바라본 <김형석 교수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

“사실 기독교는 신(神)학 아닌 신(信)학을 가진 종교”



김형석  
두란노 | 288쪽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명에  
동참하는 일이다

김형석 교수는 대한민국의 1세대 철학자로서 철학 연구에 대한 깊은 열정으로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으며 입평생 학문 연구와 집필에 심혈을 기울였다. 철학자로 살면서 동시에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왔다.

이 책은 저자가 신앙의 문제, 즉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 그가 겪은 경험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의 신앙 기록인 동시에 그 근거를 이루고 있는 종교적 진리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다. 총 4부로 ▲나는 어떻게 신자가 되었는가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오나 ▲예수를 닮아가는 삶 ▲예수와 그 주변 사람들이다 구성돼 있다. 이 중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오나'가 눈길을 이끈다.

김 교수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 중에 두 아들의 비유가 있다. 이 비유에선 아버지 큰아들과 작은아들께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고 말했다. 큰아들은 ‘예’라고 답했지만, 작은아들은 ‘아니오. 싫습니다’라고 답했지만, 뉘우치고 밭에 가서 일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믿음이란 무엇이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묻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은 지

식의 긍정이라고 생각한다. 배워서 알고 깨달은 바를 지적으로 긍정하면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은 많다. 아울러 많은 신학자가 그것을 인정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믿음은 의지와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믿음과 사랑의 실천이라면 신앙은 생활이어야 하고, 생활은 곧 행위를 뜻한다”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실천과 활동에만 치우치거나 그 일에만 열중한 나머지 신학적 깊이나 체계적인 기독교의 이해를 놓치게 되면 정신적 빈곤과 내면적 공허를 면치 못하게 된다. 또한, 신앙을 감정적 상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는 후진 사회나 지적 수준이 낮은 사회에 가면 두드러진다”라며 “본래 신앙의 기능에는 감정 요소가 다분하다. 하지만 지적으로 빈곤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적 흥분과 도취를 신앙으로 생각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그 정도를 넘어 망야 상태에 빠지거나 방언 등에 도취하게 되면 비정상적인 상태가 은총의 사실인 듯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미국의 흑인 교회를 방문하면 그런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 아울러 성령 강림이나 예수의 재림을 강조하는 교파에서는 그런 성격의 신앙생활이 자주 눈에 띈다”라며 “어느 누구도 참다운 신앙생활에 대해 만족스러운 정의를 내릴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신앙은 인간의 지성·의지·감정을 모두 포함한 고요하고도 엄숙한 전인적인 인격의 과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다.

김 교수는 이어 “사실 기독교는 신(神)학이 아니라 신(信)학을 가진 종교이다. 신(神)학은 예전에도 있었고 기독교 외에도 얼마든지 있다. 무신론자에게도 신(神)학은 존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신(神)학과 신(信)학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철학자들의 신(神)학이 학문적 접근에 중점을 둔다면, 기독교의 신(信)학은 교회의 믿음이 그 중심을 이룬다”라고 했다.

이어 “믿음은 경건하고도 엄숙한 인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그의 인격과 삶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리스도의 사명에 동참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편협한 인품이나 병든 인격을 가져서는 안 된다. 물론 병든 인격이 그리스도에 의해 새로고침을 받는 것

은 사실이나 우리는 자신의 인격과 인격을 소홀히 여기거나 인격 완성의 책임을 경시해선 안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크리스천이면 누가 봐도 믿음직스럽고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하든지 정성과 진실을 느낄 수 있는 인품을 갖춰야 한다. 또한 모든 이웃이 마음으로 부터 존경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인격의 소유자이면서 그 위에 크리스천의 요소를 갖춰야 한다”라고 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우리는 아버지가 포도밭으로 가서 일하라고 했을 때 그러겠다고 대답해 놓고 가지 않은 큰아들처럼 말만 앞서기보다는 처음에 잘못했을지언정 곧 잘못을 뉘우치고 일터로 가는 작은아들처럼 실천이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신앙 자체가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보다 생활, 요구보다 모범, 시키기보다 섬기는 자세로 교회생활을 이끌어가야 한다”라며 “믿음은 얕이 아니라 신념이며, 신념은 실천을 통해 얻는 확신이다. 그러므로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실천의 신념을 뜻한다. 삶의 결실을 이웃과 사회에 전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 것”이라고 했다.

최승연 기자

[신간] 마틴 로이드 존스의 복 있는 사람

두란노서원이 마틴 로이드 존스의 <복 있는 사람>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는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이를 원하는 이들을 위해 저자가 시편 1편을 기반으로 집필했다.

출판사에 따르면 “불행을 꿈꾸며 사는 이는 없을 것이다. 모든 인간은 행복한 삶을 꿈꾸며 산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다. 그러나 그 행복은 정의도 다들뿐더러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

리는 늘 행복을 갈구하며 산다. 때로 우리는 행복한 삶을 꿈꾸다 허무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행복에 대해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며 “행복을 찾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 시편을 읽으면 된다. 20세기 최고의 강해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가 설명해 주는 시편 1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행복’으로 가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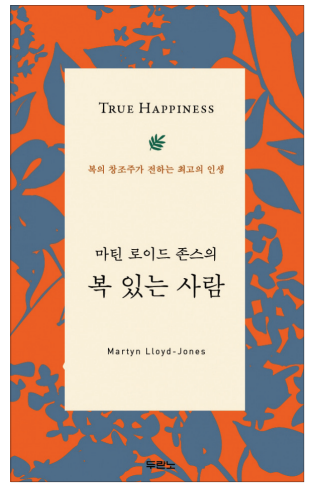
이어 “이 책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4장 모두 저자의 강해설교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구어체를 사

용했기에 친근감이 있으며, 각 장은 시편 1편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 놓은 것이다. 저자는 불안, 초조, 불면증, 걱정, 근심, 경쟁으로 점철된 삶을 사는 이유에 대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제 그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 놓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럴 때 자신의 인생에 대한 여지 책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성경 전체의 통일된 주제라고 저자는 말한다. 하나님을 믿고 시편 1편이 말해 주는 복을 따라가다 보면 늘 마른 장막과 같은 인생이 마르지

않는 샘 곁에 심어진 인생처럼 풍족하고 열매가 있게 된다. 삶이 너무 팍팍하고 갈급한 마음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 책을 읽어 보라”라고 했다.

한편, 저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 영국 웨일스에서 태어났으며 런던대학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왕실 주치의 토머스 호더경의 수석 어시스턴트를 지냈다. 그러다 2년 후 27세에 의사의 길을 내려놓고 설교자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수많은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가 되었다. 1938년부터 1968년까지 30년간 런던 웨스트민스터채플에서 목회를 하며 지대한 영적 영향을 행사했다.



저서로는 <십자가>, <설교와 설교자>, <회개>, <부흥>, <마틴 로이드 존스의 내 구주 예수> 등이 있다.

최승연 기자

2022년 밀알장애인 장학복지기금 장학생 모집

밀알선교단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장애인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정진하고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밀알 장애인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수혜대상

- 밀알장학생: 00명 (대학 또는 대학원을 full-time으로 재학중인 장애인)
- 꿈나무장학생: 00명 (사랑의교실 참가자 또는 배움의 기회와 학업의 격려가 필요한 장애인)
- 근로복지생: 0명 (미주 각 지역 밀알선교단에서 봉사하는 장애인)

제출서류

- 완성되지 않은 신청서와 부족한 서류는 심사대상에서 엄격히 제외됩니다.
- 기존 장학생들도 반드시 동일하게 서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금 신청서는 남가주밀알선교단 페이스북 (www.facebook.com/milalmission)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1. 밀알장학생**
  - 신청서 (남가주밀알선교단 소정양식)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본인 신앙 간증문 (최소 500단어)
  - 수입증명서 (예: 최근 세금환급 (Tax Return),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 (Pay stub), 고용주의 편지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경제적 도움을 받는 곳으로부터 편지,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추천서 2매 (총석교회 담임사역자 및 소속학교 담당 지도교수)

- 2. 꿈나무장학생**
  - 신청서 (남가주밀알선교단 소정양식)
  - 재학증명서
  - 수입증명서 (예: 최근 세금환급 (Tax Return),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 (Pay stub), 고용주의 편지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경제적 도움을 받는 곳으로부터 편지,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앙 간증문 (최소 500 단어)
  - 추천서 2매 (총석교회 담임사역자 및 소속학교 담당 지도교수)

- 3. 근로복지생**
  - 신청서 (남가주밀알선교단 소정양식)
  - 본인 신앙 간증문 (최소 500단어)
  - 수입증명서 (예: 최근 세금환급 (Tax Return),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 (Pay stub), 고용주의 편지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경제적 도움을 받는 곳으로부터 편지,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추천서 2매 (총석교회 담임사역자 및 소속학교 담당 지도교수)

- 장학금액**
- 밀알장학생 & 근로복지생: 1인당 \$3,600.00 (매달 \$300 지급)
  - 꿈나무장학생: 1인당 \$1,000.00 (일시 지급)

- 신청마감** 2022년 1월 28일(금)까지 우체국 직인이 찍힌 것에 한함 (Email 접수 가능)  
**발표** 2022년 2월 25일(금) 개별통보함  
**수여식** 추후발표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1)

마블 스파이더맨: 과학기술 기반 캐릭터가 신화와 주술로 퇴행

신화와 주술에 빠져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 퇴장 후 인기 캐릭터 과학기술 의존 캐릭터로는, 참신성 부여 힘들어 원시종교적 요소 차용에도, 종교적 감성은 희박

◆주술 중심의 서사: 멀티버스 이론과 주술에 기댄 새로운 스파이더맨 시리즈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이 금주 개봉한다. 올 연말 최대 기대작으로 손꼽히는 영화로서, 최근 대중적 흥행과 평단의 평가를 양면으로 계속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페이즈 4를 살려낼 작품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트레일러 영상들을 통해 전체적인 서사는 어느 정도 밝혀진 상황이다.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에서 빌런인 미스터리오의 계약에 의해 정체가 만방에 폭로된 스파이더맨, 즉 피터 파커는 자신의 일상을 되찾고 주변인들을 보호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전체에서 가장 유능한 주술사 닥터 스트레인지의 도움을 받는다.

피터는 전 세계가 자신의 정체를 망각하게 만들 방법이 있는지 묻는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이 부탁을 가능하게 만드는 주술을 시행하지만, 중간에 피터가 자기 주변인들의 기억은 예외로 할 수 없는지 부탁하다 닥터 스트레인지의 집중력을 깨뜨리게 된다.

이로 인해 주술의 예기치 않은 부작용으로 다른 멀티버스에 존재하는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빌런들 전체를 현재 피터가 존재하는 세상으로 불러오게 된다. 이로써 피터는 자신을 증오하는 여러 빌런들을 한꺼번에 대적하며 커다란 위기에 처한다.

이번 작품에서 마블 스튜디오는 다시금 멀티버스 이론을 기반으로 흥미로운 서사를 장안했고, 팬들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것으로 보인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페이즈 3의 대미를 장식한 <어벤저스: 엔드게임>에서 마블 엔터테인먼트의 부흥을 주도했던 두 캐릭터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

가 퇴장한 이후 그나마 가장 인기있는 캐릭터라고 한다면, 단연 스파이더맨과 닥터 스트레인지라고 볼 수 있다.

힐크는 특유의 분노 어린 캐릭터성을 잃어버렸고, 토르는 <토르: 라그나로크> 당시까지 보여준 강인한 이미지를 잃어버렸다. 결국 현재로서는 스파이더맨과 닥터 스트레인지가 기존 주연급 등장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은 바로 이 두 인기 캐릭터의 협력을 그려낸 영화인만큼, 마블 스튜디오와 마블의 팬들 양면 모두 흥행에 큰 기대감을 걸고 있다. 닥터 스트레인지의 가장 큰 무기는 주술이다. 신체 능력만 따지면 어느 정도 무술을 단련한 일반인 수준이지만, 천재적인 지능을 바탕으로 시간과 공간을 비롯한 세상의 물리법칙을 자기 뜻대로 조작하는 주술능력 덕분에 마블 세계관에서 가장 강력한 히어로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주술에 빠진 마블: 과학과 기술에서 신화와 주술과 전설로, 마블의 앞길

이로써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페이즈 4에서는 과학보다 주술이 전체 서사를 이끌어가는 핵심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페이즈 3까지는 아직 주술보다 과학이 전체 서사와 세계관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페이지 3까지 서사를 주도해 온 캐릭터 가운데 신화적 인물인 토르와 로키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대부분 과학의 힘으로 히어로 혹은 빌런 역을 이어가는 캐릭터들이다.

반면 현재까지 페이즈 4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캐릭터 대부분은 신화나 주술의 영역에 속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서



올 연말 최대 기대작,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사의 본격적인 출발점 역시 주술로부터 출발한다.

주인공은 분명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우연한 사건(특별한 종류의 거미에 물림)을 통해 힘을 얻은 스파이더맨이지만, 사실 이 작품에서 스파이더맨은 서사를 주도하는 입장이 아니라 주위 상황에 수동적으로 이끌려 가는 처지에 놓여 있다.

실제 서사 속 상황을 주도하는 인물은 주술사 닥터 스트레인지이다. 물론 닥터 스트레인지도 다른 멀티버스의 빌런들을 한 데 모아오는 참사를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가 시도한 주술이 영화의 핵심 사건을 일으켰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게다가 그 해결 과정 또한 닥터 스트레인지의 지도와 협력에 의존해 스파이더맨이 움직이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실제적으로 서사를 이끄는 것은 스파이더맨이 아니라 닥터 스트레인지다. 그만큼 그의 능력과 카리스마가 현재 마블 세계관 전체에서 히어로들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능력으로만 따지면 캡틴 마블도 최고 수준의 히어로지만, 영화적 매력으로는 닥터 스트레인지에 한참 못미친다. 그만큼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캐릭터 설정과 이 캐릭터를 연기하는 베네딕트 컴버배치의 연기가 훌륭하다는 뜻이다.

주술, 신화, 전설 영역에 속한 캐릭터에 점차 더 의존해가는

상황, 이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깊어갈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최초 출발점이었던 2008년 <아이언맨> 당시만 해도, 과학기술에 의존하는 히어로 캐릭터는 꽤 참신한 것이었다.

특히 특별한 신체 개조를 거치거나 전투 훈련을 받지 않은 채 순전히 아이언 슈트와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에만 의존해 히어로가 된 경우는 아이언맨이 거의 유일했다.

그러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3까지 10년이 넘게 마블 히어로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캡틴 아메리카, 윈터솔저, 팔콘, 앤트맨 등 과학기술에 의존하는 캐릭터가 여럿 등장했다. 더 이상 과학기술에 근거한 능력을 가지고는 히어로 캐릭터에 참신함을 부여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과학적 도구와 장비, 신체개조, 방사능 오염, 인공지능, 복제 인간 창조, 특별한 생물을 통한 전염 등 과학적으로 나올 만한 히어로 서사 요소는 이미 거의 다 채워진 상황이다.

반면 주술과 신화, 전설의 영역은 과학기술 영역보다 상상의 나라를 펼칠 여지가 훨씬 더 크게 열려 있다. 과학기술에 의존한 히어로 캐릭터 설정과 서사는 어느 정도 우주를 지배하는 물리법칙 체계를 의식해야 하는 한계가 있지만, 주술, 신화, 전설 영역은 그런 제한에 크게 영향 받지 않는다.

그저 주술이고 신화이고 전설이기 때문에 매우 허구적인 서사나 능력도 납득될 수 있다. 마블판 '데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 machina)'인 셈이다.

즉 서사와 캐릭터의 참신성을 계속 갖춰나가기 위해 마블 스튜디오는 점점 더 이런 초현실, 초자연 영역의 요소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블 스튜디오 입장에서 외통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일 것이다.

그런데 주술, 신화, 전설 등은 기본적으로 원시 종교를 지탱하는 핵심요소들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물음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점점 더 종교적 감각을 일깨우는데 도움이 되는 작품들을 만들고 있는 것인가?

일정 부분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현재의 마블 스튜디오 작품들은 원시종교적 요소들을 적극 차용하고 거기에 점점 더 의존하면서도 종교적 감성은 날이 갈수록 더 희박해지고 있다.

이는 마블 스튜디오가 종교적이고 신화적인 요소들을 차용할 때 그것들 속에 원래 담겨 있는 삶과 죽음의 공존과 교차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로지 흥미 위주로만 활용하기 때문이다.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Advertisement for PRO-Z Gold capsules, featuring a bottle image, text about diabetes treatment, and a 'SALE' banner.





# 시내산이 사우디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우디 시내산 순례길 참가자 모집

## 2022년 상반기 일정

2월 순례길 : 2022년 2/21 ~ 3/5 (마감)  
 3월 순례길 : 2022년 3/21 ~ 4/2  
 4월 순례길 : 2022년 4/11 ~ 4/23

## 2022년 하반기 일정

10월, 11월, 12월 예정

\* 각 일정별 정원은 30명입니다.  
 일찍 신청하지 않으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왜 사우디의 시내산인가?

기독교 출애굽의 경로가 바뀌고 있습니다. 시내산은 기존의 이집트 시내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NEOM Project의 일환으로 문호를 활짝 열고 방문객들을 받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 사우디 시내산을 주장하는 학자들/선각자들



Robert Cornuke

"The Mountain of God" (사우디 시내산) 저자

"이 책은 실제 시내산 발견에 대한 종래의 이론을 뒤집는 새로운 탐구물입니다."



이재환 선교사

Come Mission 정립자

"가보면 보게 되고 알게되고 영성이 살아납니다.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이 실재를 얻게 됩니다."



김승학 장로

성경이후 최고의 기독교 사적 베스트 셀러, "별기나루 1&2" 저자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반도에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6년동안 12차례 북부 아라비아 탐사, 별기나루 1편, 2편을 저술, 400회가 넘는 강연 활동중.



Penny & Jim Caldwell

"The God of the Mountain" 저자, 좌초 르비딴 반석 & 여오와 낫시 제단 발견자

"우리는 Jabal al-Maqla 가 성경에서 나오는 실제 시내산 (Mount Sinai) 이라고 믿으며, Jabal al-Lawz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산 호렘 (Mount Horeb) 이라고 믿는다."



Dr. Glen A. Fritz

대작 "The Lost Sea of the Exodus", "The Exodus Mysteries of Midian, Sinai & Jabal al-Lawz" 의 저자

"이브리 성경에 나오는 홍해바다 (Yam Suph) 는 아카바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아랍어 수에즈 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미디안반도는 팔레스타인 지역 남쪽, 아라비아 플렉스내 아카바만의 동쪽, 즉 사우디 아라비아를 의미합니다. 호렘산은 사우디 아라비아 북쪽의 Jabal al-Lawz 산을 의미하며 시내산은 그중 가장 높은 Jabal al-Maqla 입니다."

## 출애굽의 여정을 따라서

### 상세일정

\* 각 지역별로 저녁 시간에는 출애굽 여정을 다루는 특별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특별이 2월, 3월에는 김승학 장로의 세미나가 제공됩니다.

### 사우디 아라비아 (3박 4일)

일차	방문지
제 1일	팜 오아시스, 모세의 오아시스 (Magna), Tayeb ISM 계곡
제 2일	슈와브 동굴, 모세의 우물, 르비딴 반석
제 3일	시내산 개울가, 금송아지 암각화, 12개의 돌제단, 고대 무덤터
제 4일	시내산 엘리야의 동굴 등반, 요르단 국경으로 이동

### 요르단 (4박 5일)

일차	방문지
제 1일	요르단 도착
제 2일	주일예배, 와디럼 지프 투어
제 3일	페트라(시크, 엘카즈네 신전, 오르산 조망, 로마 원형극장, 왕들의 무덤, 나비테안 유적 등)
제 4일	느보산, 마다바(모자이크 성서지도), 헤스본성 순례 후 마인 온천
제 5일	압복강 조망, 제라쉬 로마유적지 관광, 공항이동

### 두바이 (3박 4일)

일차	방문지
제 1일	두바이 도착
제 2일	두바이 몰, View at the Palm, 속메디닛 주메이라, 두바이 박물관(성경사본) 관람
제 3일	바스타키야(민속촌), 향신료 시장, 두바이 마리나 Private 요트관광, 전통 시장, 워터쇼 관람
제 4일	두바이 출국

백신 접종률 (10/30/2021 기준)  
 United Arab Emirates - 86.9%(Full) + 9.9%(Partial)  
 Saudi Arabia - 61.0%(Full) + 7.5%(Partial)

## NEOM 프로젝트

NEOM은 New Future 라는 뜻입니다. 사우디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석유의 사용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사우디 생존을 위하여 시작한 어마어마한 도시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의 400배 크기의 땅에 2조 달러 이상을 투입하여 탄소가스 제로, 길거리 제로, 타 지역보다 섭씨 10도 이하로 낮게 하는 100% 자연 친화적인 Cognitive City 를 건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내산 개방은 이 거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하여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기 위함입니다. 여성이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운전할 수 있으며 자유로이 외출을 허용함에 이어 눈만 내놓았던 히잡사용도 이미 자율화 하였습니다. (https://neom.com/en-us)



엘림



엘리아의 동굴



금송아지 암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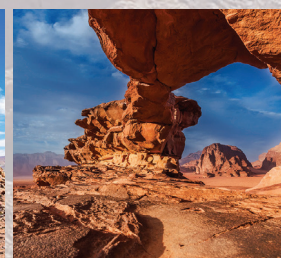
르비딴 반석



시내산 앞 12개의 돌기둥



페트라



와디럼



예수님 세례터



Burj Khalifa



주메이라 팜 아일랜드

## 세마포 호도스 (Semapo Hodos)

세마포 호도스는 사우디 시내산을 진짜 시내산으로 굳게 믿고 40년간의 하나님 출애굽 역사의 현장을 생생하게 방문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된 비영리단체입니다. 세마포는 예수님의 수의이자 재림시 입을실 옷, 또 '성도의 바른 행실'을 의미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혁명 시대에 세상과 마주하며 통찰하기 위한 '세상을 마주하는 포럼' 의 준말이기도 합니다. Hodos 는 '갈'이라는 뜻의 희랍어입니다.



Instagram : @semapohodos  
 Email : info@semapohodos.com

https://VisitMountSinaiArabia.com

213-262-9411